

■ 대한양계협회, 양계장 사육면적 조기 확대 시행 건의... 일선 농가 이견

“달걀 과잉 공급 문제 해소” vs “수입 감소”

제주양계협회 “농장 면적에 따라 적용 방안 검토 필요”

양계협회가 정부에 산란계농장(양계장) 사육면적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농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등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채란

위원회를 열고 산란계 사육면적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양계협회가 산란계 농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기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비율이 60%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양계협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달걀 과잉 공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량과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경제적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에서 소규모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사육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입도 크게 줄게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개정된 축산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조기 시행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양계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협회 소속 농가들은 축산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농가는 미리 사육면적

확대를 적용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일부 소규모 농장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달걀 과잉 공급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대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 면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면적 조기 확대 시행을 통해 달걀 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고, 특히 업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1600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12억86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현영종기자



다시 돌아온 저어새 겨울을 나기 위해 1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를 찾은 '겨울의 진객'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10여마리가 바위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복회 겨는 원희룡... 광복회 손잡은 이석문

원 “김원봉은 6·25 주범”... 이 “광복회 발간 책으로 학생 역사 교육”

친일 정산을 요구하는 광복회와 거리를 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달리 이석문 도교육감은 광복회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광복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독립운동 바로알기’ 역사 교육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지난 8월 15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회 광복절 경축식’이 원 지사의 돌발 발언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이 교육감이 “(원 지사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역사 앞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나라 잃은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며 광복회의 ‘친일파 파묘’ 요구를 겨냥했고, 반대로 이 교육감은 “광복회와 협력해 한국 근현대사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보급·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역사 교육은 광복회가 올해 출간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제1차 위대한 시민의 역사’ 세트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책에는 김원봉과 신채호, 이봉창, 김산, 안규홍,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의 일대기가 담겨졌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지난 8월 21일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해 “김원봉 같은 사람은 일제 때는 독립군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 정권

에 참여해서 6·25 주범이었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훈장을 주자, 이게 말이 안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복회에서 출간한 책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항일 독립운동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순국선열의 평화·인권·독립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를 진행해 교표, 교가, 친일반민족행위 등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6일 금요일 음 8월 30일 (7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60%
30%	고산	6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6/21℃
모레	구름 많음	15/21℃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흐리고 가끔 비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 낮 최고 기온은 20~21℃를 기록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39	달뜨기 05:35
해질름 17:59	달짐 17:55
물때	간조 04:17
	22:21
	16:3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도내 외국인 범죄 매년 600~700건 발생

최근 3년간 2007명 검거 교통·폭력 사범 가장 많아 불법체류자 범죄도 급증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2007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지난해 732명이다. 지난해엔 외국인 범죄자가 1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422명이 외국인 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과 올 8월까지 검거된 도내 외국인 범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 관련 혐의로 검거된 범죄자가 605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 516명, 절도·지능 각각 306명, 강간 추행 42명 등이다. 살인 혐의로도 16명이 검거됐다.

도내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2017년 67명에서 2018년 105명, 지난해 13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68명의 불법체류자가 살인·폭력·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법·규율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5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